

SAPO-11 및 SAPO-34 분자체 촉매를 이용한 MTO (Methanol-to-Olefin)  
반응에서의 물첨가 효과에 관한 연구

김 창 대, 정 석 진  
경희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

Studies on the Water Addition Effect of the Methanol-to-Olefin Reaction  
Activities using SAPO-11 and SAPO-34 Molecular Sieve Catalysts

Chang-Dae Kim, Suk-Jin Choung  
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, Kyung Hee University

### 서 론

C<sub>1</sub> 화학은 2000년대 산업의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이며,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미래의 화공분야에서는 MTG, MTO Hong정의 연구 및 공정개발이 주 과제가 될 것이다[1]. Methanol을 Gasoline으로 전환시키는 공정(MTG)은 olefin이나 방향족 탄화수소처럼 특정한 탄화수소의 생산수단으로 연구되고 있으며, 뉴질랜드에서는 MTG공정이 상용화 되었다고 한다. 또한 메탄올을 올레핀으로 전환시키는 MTO 공정도 석유화학공업의 원료공급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. 본 연구의 최대 문제점은 반응이 olefin 생성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의 반응을 통해 상당량의 paraffin과 aromatic을 생성한다는데 있다. 따라서 최대의 olefin 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aromatization step의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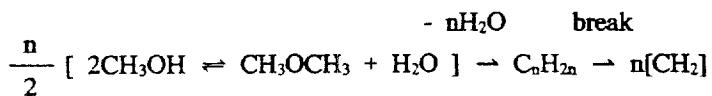


Fig.1 The Reaction Path of Methanol to Olefin  
[CH<sub>2</sub>] : Aromatic - Paraffin 혼합물의 평균 분자식

Chang[2]에 의하면 light olefin의 선택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, 또한 분자체 촉매에 반응물인 Methanol을 물에 회석시켜 반응시키면 olefin 선택도가 증진된다고 알려져 있다[3]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PO 계열 촉매에 물을 첨가할 경우 전환율 및 선택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피며, olefin 선택도가 증가한다는 일반적 보고를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.

### 이 론

SAPO 분자체는 알루미늄과 인, 그리고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분자체로서 산성을 보이고 산촉매 반응에서 촉매활성이 있다. 즉, SAPO 분자체는 Si, Al, P 주위에 산소로 이루어진 (Si<sub>x</sub>Al<sub>y</sub>P<sub>z</sub>)O<sub>4</sub> 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[4]. 본 연구에서 사용된 SAPO 분자체는 격자구조 내의 P와 Si 교환정도에 따라 넓은 범위의 촉매 산도를 가질 수 있었고 격자의 양이온을 금속 양이온으로 치환할 경우, 상당한 촉매 산도 (주로 Brønsted 산점)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정[5], [6]등은 실험적으로 보고하고 있다. 또한 서[7]등은 반응물에 물을 첨가함으로써 강산점을 부분적으로 차

폐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. 따라서 적절한 양이온 교환방법 및 물의 첨가는 촉매 산도와 산점율을 적절하게 변화시켜 MTO의 aromatization 단계를 억제하여 각 조건들에 따른 최대의 olefin 선택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 촉매를 제공하였다.

### 실험

SAPO-11 촉매는 Union Carbide Co. 의 제품으로 Si/Al mole ratio가 약 0.12인 ( $\text{Si}_{0.06} \text{Al}_{0.49} \text{P}_{0.45} \text{O}_2$ )이다. Pore size는 0.6 nm이며 Pore volume은  $0.18 \text{ H}_2\text{O cm}^3/\text{g}$ 이다. 본 연구에서 제조하려는 Pd/SAPO-11 촉매에서 Pd는  $[\text{Pd}(\text{NH}_3)_4(\text{NO}_3)_2]$  형태로 SAPO내로 도입된다. Pd/SAPO-11의 제조는 금속 Pd를 이온교환한 후 수차례에 걸쳐 여과, 세척을 하고  $110^\circ\text{C}$ 에서 6시간 동안 건조시켰으며,  $550^\circ\text{C}$  공기 흐름 하에서 6시간 소성시켜 최종 촉매를 얻었다. 이온교환법에 의한 촉매의 결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실험을 하여 보았다. 또한 촉매의 산도를 측정하여 보기 위해  $\text{NH}_3$  TPD를 실시하였으며, detector로는 Gow Mac사의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를 사용하였다. 반응기로는 stainless steel 관을 사용하여 소형의 연속 흐름 반응기로 조립하였고, furnace내에 thermocouple을 설치하여  $\pm 5^\circ\text{C}$  범위에서 온도를 제어하였다. 반응물의 주입은 Orion사의 Model 341B Syringe pump을 사용하여 미량씩(1ml/hr)을 주입하여 응축되지 않도록 가열한 상태에서 생성된 시료를 채취, FID로 분석하였다. 이때 Column으로는 Chromosorb 102을 사용하였다. 또한 각 촉매들의 Water Effect를 살펴보기 위해 Methanol에 중류수를 30, 50, 70 vol. %씩 첨가하여 물 첨가 전,후의 양상을 비교하여 보았다.

### 결과 및 고찰

#### 1. SAPO 촉매의 반응성

SAPO-11, Pd/SAPO-11, SAPO-34, HZSM-5상에서의 반응 온도에 따른 생성물 분포 결과는 (Fig. 2)에 나타내었다. 저온 영역의 온도 구간을 살펴보면 HZSM-5, SAPO-11, SAPO-34 순으로 높은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. 그러나 온도가 고온( $500^\circ\text{C}$ )으로 올라감에 따라 SAPO-11, Pd/SAPO-11의 경우가 급격한 전환율의 상승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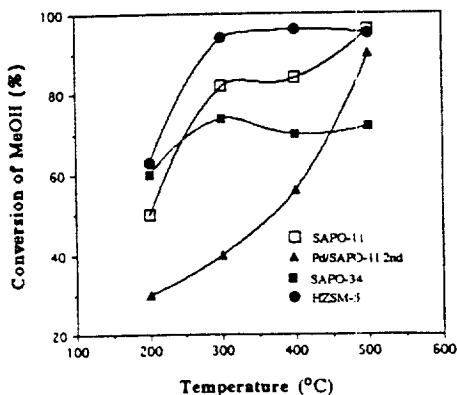


Fig. 2 Methanol % Conversion with Temp. for various Catalys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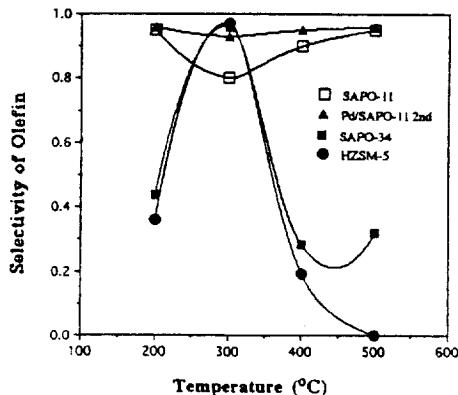


Fig. 3 C3 Olefin Selectivity with Temp. for various Catalysts

반면, SAPO-34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도 전환율은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관찰되어진다. 또한 (Fig. 3)에서 볼 때 SAPO-34, HZSM-5가 저온( $300^{\circ}\text{C}$ )에서 Olefin 선택도가 높다. 그러나  $400^{\circ}\text{C}$  이상의 고온에서는 Olefin 선택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. 이는 전환율이 온도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HZSM-5의 경우, Olefin이 탈수소 고리화 반응등에 의하여 방향족 화합물로 전환되는 것으로 사료되며, C<sub>3</sub> olefin 이 C<sub>3</sub> paraffin 및 방향족으로의 전환에 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. SAPO-34의 경우는 고온에서 미세 기공으로 인한 탄소 퇴적의 촉매 노화 현상으로 활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. 또한 SAPO-11 촉매에 Brønsted acid site을 Pd 금속 이온을 이용하여 적절한 산점의 변화를 가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Olefin 선택도를 가진 촉매를 조사하여 보았다. 즉, Pd/SAPO-11 촉매의 이온 교환 정도에 따른 전환율과 Olefin 선택도를 비교하여 볼 때, 이온 교환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선택도도 증가함을 볼 수 있다. 그러나 과다한 이온 교환은 적절한 Brønsted acid site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Olefin 선택도에 있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.

## 2. 물 첨가에 따른 반응성 변화

(Fig. 4)는 반응제가 충분히 정상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어질 때 얻은 결과로 반응물에 물을 첨가하면 전환율이 SAPO-34 촉매에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, 물을 첨가하기 전의 경우에는 미세 기공의 탄소 침적으로 인해 고온에서 급격한 Deactivation이 일어나는데 반해, 물 첨가 이후에는 촉매의 노화가 저하됨을 보여주고 있다. HZSM-5 촉매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환율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와같은 결과는 물에 의해 메탄을 전환 반응이 억제되지 않는다는 Anderson[8]의 결과와 매우 잘부합된다. 또한 전환율의 상승효과는 pore에 침적되어 있던 Product에 대한 Water vapor의 증류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, 반응물에 대한 분압의 감소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[2]으로 생각된다. 그러나 (Fig. 5)에서 보듯이 SAPO-11 계열 촉매에 있어서는 앞서의 촉매들과는 달리 약간의 전환율 효과만을 보였을 뿐, (Fig. 4), (Fig. 5)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첨가된 물의 양에 따른 전환율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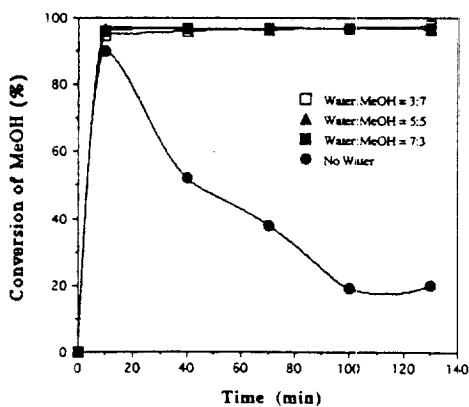


Fig. 4 Water Addition Effect for SAPO-34 at  $400^{\circ}\text{C}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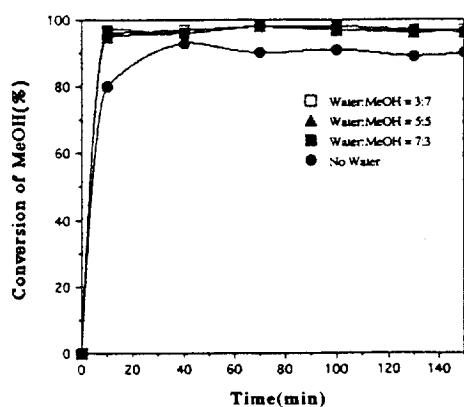


Fig. 5 Water Addition Effect for SAPO-11 at  $400^{\circ}\text{C}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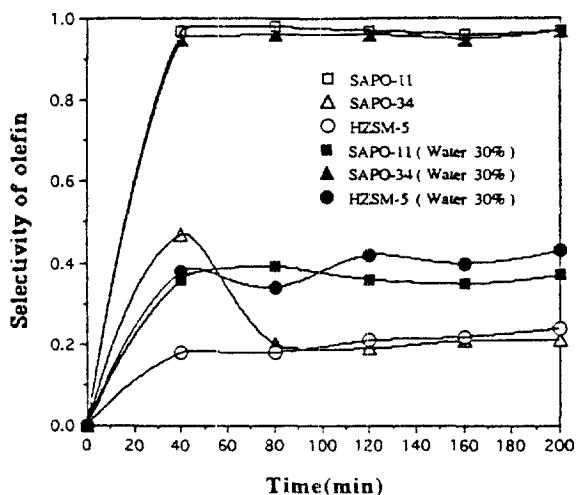


Fig. 6 Comparison of Olefin Selectivity before and after Water Addition for various Catalysts at 400°C

이러한 현상은 실험에 사용된 모든 촉매에서 관찰되었으며 과량의 물을 첨가하여도 전환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. 그러나 과량의 물을 첨가할 경우 선택도에 있어서 SAPO-11과 SAPO-34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SAPO-34는 전환율과 마찬가지로 물 첨가량의 변화에 따른 선택도 변화가 없었던 반면, SAPO-11의 경우에는 물과 메탄올의 volume percent가 3:7<5:5=7:3의 순서를 보였다. 그러나 SAPO-11에서의 이러한 선택도 증가는 물첨가 이전보다 훨씬 저하된 것임을 감안 할 때, 물의 증가로 선택도가 증가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 된다. 오히려 (Fig. 6)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을 첨가하기 이전보다 Olefin 선택도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. 결국 이러한 선택도 감소 현상은 SAPO-11 계열 촉매가 적절한 산 강도 및 산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, 물이 첨가됨으로써 산점에 물이 흡착되어 부분적으로 차폐효과를 유도하여, 적절했던 Brønsted acid site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생각 한다. 그러나, 이러한 가능성은 물을 첨가한 SAPO-11계열 촉매에 대한 산성도와 반응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뒷바침되어야 한다고 본다. 따라서, 물의 첨가 효과는 SAPO-34, HZSM-5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SAPO-34의 결과는 물 첨가시 Olefin 선택도가 90% 이상으로 증가한다[9]는 일반적인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, HZSM-5 경우 물을 첨가하기 이전보다 2배정도의 olefin 선택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### 참고문헌

- [1]. Chen, Garwood and Dwyer, "Shape Selective Catalysis in Industrial Application", Chap. 7, Marcel Dekker, Inc. (1989)
- [2]. Chang et al., J. of Cat., Vol. 85, 499 (1984)
- [3]. J. H. Jeong, J. W. Lee, H. K. Rhee, 화학공학, Vol. 31, No. 3 (1993)
- [4]. Lok et al., US Patent 4,440,871
- [5]. S. J. Choung, J. B. Butt, Appl. Cat., 94, 173 (1990)
- [6]. S. J. Choung,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em. of Microporous Crystal(CMPC) Extended Abstract, OP. 2, 37, Tokyo, Japan (1990)
- [7]. G. Seo, T. S. Ko, 화학공학, Vol. 28, No. 2 (1990)
- [8]. Anderson et al., J. of Cat., Vol. 61, 477 (1980)
- [9]. J. A. Rabo, Proc. 1st Korea-U.S.A Catalysis Workshop, 1987, Seoul